

중국 박물관의 서화

박성원*

목 차

1. 上海博物館의 繪畫·書藝·篆刻
2. 浙江省博物館
3. 天一閣의 明州碑林
4. 南京博物院의 繪畫室

5박6일 간의 中國江南文化圈 답사의 큰 주제는 중국강남문화 중 南宋관요와 우리나라 도자기의 연관성 고찰이었지만, 실제로 이 답사는 도자사 뿐 아니라 회화사, 서예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특히 각 박물관 관람을 통해서, 실제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회화사 및 서예사에 관심있는 박물관 학예연구원들에게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上海博物館, 浙江省博物館, 南京博物院에서 회화와 서예를 접할 수 있었으며, 중국의 유명 碑林 중 하나인 天一閣의 明州碑林을 방문한 것 역시 이번 답사의 큰 소득이었다.

이 글은 이번 답사에서 방문했던 박물관 중 서화를 소장 전시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답사 진행 순서대로 上海博物館, 浙江省博物館, 天一閣의 明州碑林, 南京博物院 차례로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의 말미에 ‘남기는 글’로 이번 답사에 대한 몇가지 느낌을 남겨보기로 하겠다.

1. 上海博物館의 繪畫·書藝·篆刻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엄청난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상해박물관. 상해박물관의 3층 전체는 회화, 서예, 전각실로 이뤄져 있었다. 전시유물들은 중국미술사의 개괄을 한눈에 보여주듯, 흐름이 일목요연하였다. 회화실, 서예실, 전각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화실과 서예실의 분위기는 일관되게 통일성을 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답사 중 중국박물관에서 일관되게 느낀 점은 설명이 상당히 간략하다는 것이었는데 상해박물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간략한 설명과 수많은 작품들.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진가를 느끼라는 뜻이리라.

*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1) 繪畫室과 書藝室

회화실과 서예실은 단아한 목조 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목조의 지붕으로 전시장 유리 윗쪽을 장식하고, 아랫쪽은 난간을 얇게 둘러 전체의 분위기를 단아하게 이끌어, 전시된 회화와 서예의 격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낸 전시실 내부 디자인. 그리고 관람자가 작품 앞에 서면 서서히 밝아지는-센서를 통해 조도를 통제하고 변화를 주는 조명방식. 회화와 서예의 보존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쓴 안팎으로 완벽한 회화실과 서예실, 상해 박물관 전시실의 일면이었지만 오늘의 중국 박물관의 모습을 알려주는 듯했다.

ㄱ) 繪畫室

회화실의 전시품은 중국회화사를 시대별로 소개하되, 양식, 유파, 작가, 화목 즉 주제별로 분류해서 전시해놓아, 중국회화의 흐름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해 놓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벽면을 따라 전체 기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횡축 족자 및 화첩 등 소품류는 중앙에 진열해 놓았다.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지만, 주종은 山水畫였다. 시대별로는 五代부터 清代까지의 작품들이 골고루 전시되었다.

상해박물관 관람 이후 답사 이동시간 동안 허영환단장님의 회화사 강의를 들으면서 소장 회화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 보았다. 夏商(殷)周代의 도안의 개념으로서의 그림은, 秦代를 거쳐 漢唐代 동안 인물 중심의 채색화로 자리잡게 되고, 대략 당말 오대 무렵부터 수목 산수화가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는 본격적인 산수화 발전의 시대가 된다. 섬세한 표현의 사실적인 大觀山水, 文人畫의 발전, 화원 중심의 직업화가 그림, 물기 머금은 강남산수화의 발전, 시대에 따라 환경과 미감의 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는 元代에 문인화와 산수화로 발전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明代의 직업화가 浙派의 출현, 蘇州출신의 沈周와 文徵明을 중심으로 한 吳派, 전통의 수용과 변형의 실험 董其昌, 청대의 정통의 고수와 혁신의 시대까지 달려오며 중국화는 전통의 맥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시도한다. 이런 큰 흐름을 중심으로 전시된 회화의 숲에서 郭熙를 만났고, 戴進, 沈周, 文徵明의 그림과도 맞부딪혔다. 八大山人의 작은 화첩을 만나고, 金農의 개성을 느껴보았다.

ㄴ) 書藝室

서예는 문자 표현예술이다. 예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漢字라는 문자가 갖는 특징, 형상과 의미가 공존한다는 점 때문이다. 워낙에 한자는 상형 외에도 수, 자연현상 등 추상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장점을 보유했으므로, 예술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당히 매력있는 기호인 셈이다. 거기에 붓과 종이는 문자의 예술화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의미를 가진 형상, 내용의 운치와 격조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고, 그 뜻과 공간의 아름다움과 격조를 분명히 전할 서체를 선택하는 과정의 총체, 그것이 바로 서예라는 예술이다.

개인적으로 서예가 갖는 이런 매력때문에 문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서예실 관람에 대한 기쁨은 사실 다른 방보다 컸다. 서예실에는 백여점의 중국 서예의 걸작들이 시대와 서체별로 분류되어 중국 서예사의 맥을 짚도록 소개되었다.

전시실의 흐름은 초기서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서체의 완성, 완성된 서체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시대, 고종과 재해석의 시대로 이어지는 근대까지의 중국서예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초기 서체의 형성, 발전과정에서는, 殷代 甲骨文을 탁본과 함께 甲骨文片을, 周代 鐘鼎文(金文)은 銅器와 동기에 새겨진 글씨의 탁본을 보여줌으로써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동기에 새겨진 금문은 이후 절강성박물관 등에서도 실물로 볼 수 있었는데, 필자는 몇십배 혹은 몇백배 확대된 탁본 인쇄본이나 입서한 글씨로만 접했었기에, 글씨의 크기나 날카로운 정도에 대한 느낌을 직접 접하고 나니 그 기분이 묘할 뿐이었다. 주대 초기까지의 古文, 그 이후의 籀文-이후에 大篆으로 발전되는 글씨들에 이어, 秦대에 완성된 통일된 전서체 小篆은 탁본된 嶧山刻石을 예로, 서체의 복잡한 획을 간략화 조형화한 隸書는 漢代 碑의 탁본을 통해, 당대 이전까지는 각 서체의 대표급들을 탁본으로 소개하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주었다. 魏晉시대 草書와 楷書의 시대를 거쳐, 우아와 격조로 대표대는 南朝, 강건과 고졸미로 상징되는 北朝로 대변되는 남북조시대의 서체가 隋·唐을 통해 짜임새있는 일반적인 서체 楷書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시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당대를 끝으로 서체의 발전은 완성을 보는데, 전시에서도 서체완성의 단계와 표현의 시대로 대별하여, 완성된 각 서체를 통한 예술로서의 서예로써 그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宋, 元, 明代의 서예가들을 전 시대 특히 晉代와 唐代의 범도를 거슬러 올라가 익히고 이해하며, 더불어 당시의 계속 비판과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서법 예술의 최고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을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意’를 중시하던 새로운 예술의지를 표현하려던 宋代의 書家들. 옛 법을 숭상함으로써, 과거 晉과 唐의 이상 의경의 단계로 거슬러올라가고자 했던 元代의 趙孟頫의 매혹적인 글씨, 明代의 董其昌의 이지적인 글씨를 통해 원 명대의 작품들을 실견하는 것은 감동이었다. 清代 서가들의 과거에 대한 고종과 방대한 비문의 발굴 등을 통해 과거의 이상에 도달하는 노력과 그들이 이뤄내는 새로운 서풍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과 노력을 통해 일신하며 개성화 하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동 시대의 우리나라의 金正喜를 함께 떠올렸다. 한국서예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 서예사의 이해는 필수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화사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에 비해 서예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서예실의 방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거대한 맥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보여준 서예실에서 머물렀던 짧은 시간이 아쉬울 뿐이었다.

2) 篆刻室

회화실, 서예실을 돌아 바로 들어간 전각실에 대한 인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맑은 수정과 같았다. 새겨진 글씨와 더불어 印材의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전시디자인으로, 벽면엔 감실 같은 작은 진열공간을 마련해놓았다. 전각이 작은 크기라는 것을 고려, 시각적 집중을 위해 내부는 아주 밝게 전시장 전체는 아주 어둡게 해 놓았다. 기동식 독립진열장도 마찬가지. 땅에서 솟아오른 수정같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군더더기 없는 투명한 그 자체였는데, 印面을 밑에서 비춰 보여주는 斜面 거울 역시 투명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한 전시환경설정은 작은 전각작품들의 격을 높이는 데 더할나위 없었으며, 신비감까지 일게했다.

벽면 감실진열장은 중국전각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시대별 및 전각서체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전시해 전각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었으며, 독립진열장에서는 걸작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예와 전각에 관심있는 이들을 때로시키기엔 충분한 구성일 뿐 아니라, 이쪽에 전혀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印材를 감상하는 것으로도 큰 즐거움이 되는 그런 전시실이었다.

印章藝術이라고도 하는 篆刻은 문자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篆書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전각은 원래 제작 목적이 실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함께, 새겨넣고, 찍는다는 과정이 들어가는 점, 표현공간 즉 새겨넣는 공간이 한정되었으므로 일반 문자보다 변형과 생략이 크다는 점이 일반 서예와는 다르다. 주어진 작은(보통은 사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므로 전서체도 전각에서는 한 번 더 변형을 하게 된다. 이 변형 과정을 통해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과장적인 장식성까지 볼 수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된 시대의 인장들은 漢代까지 古法의 격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전서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이를 元代 趙孟頫 등이 전서를 정리하고, 明代의 文彭과 같은 이에 의해 전각의 고법 부활과 동시에 예술로써 그 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전각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오로지 실용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다시금 예술로써 의미부여가 되어 고법을 정리 발전시킴으로써 이 맥이 이어져 청대에는 우수한 전각가들이 나타나 정통의 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까지의 과정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周代까지의 璽, 秦代부터의 官印 등을 전시 유물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거기에 나타나는 글씨체는 銅器, 兵器 등의 銘文과도 비교하여 더불어 글씨의 발전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漢代 관인의 흔적을 전시된 封泥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남북조시대 당대로 계속 이어지는 인장서체. 그 종류와 형태의 변천 과정에서 蟲篆, 鳥蟲篆 등과 같은 장식성 짙게 변형된 글자들도 나타나고, 圖像印이라고 하는 상형을 새긴 인장도 나타나는 등 그 다양한 변

화를 전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

篆刻은 篆書와 印章에 대한 기본지식이 다른 미술품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감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문자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시장을 돌면서 절실하게 느꼈다.

2. 浙江省博物館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가 절강성박물관 건립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새단장한 첨단 박물관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 1층은 절강성지역의 발굴 유물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으며, 2층은 근대역사실이었다. 별관에는 절강성출신 근현대화가 “常書鴻美術館”이 있었다. 절강성박물관의 2층은 역사실이라 주로 기록물 및 무기류, 호외, 사진 등을 중심으로 전시되어있는데, 그 곳에서 孫文의 친필, 周恩來의 行書對聯을 접할 수 있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의 대련만으로 그의 글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다. 허나 그의 글씨에서는 어딘지 모르는 자신만만함과 유연함이 느껴졌다.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周恩來라는 인물의 글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별관의 常書鴻미술관은 근현대 常書鴻(1904-1994)의 기념 갤러리로 그의 프랑스유학시절부터의 작품들을 전시해놓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常書鴻의 그림을 오래 감상할 수는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절강성 출신의 유명 화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박물관 내의 기념미술관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변하고 있는 중국을 느꼈다.

3. 天一閣의 明州碑林

천일각은 명나라때 지어진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민간 藏書閣이며, 개인 장서각의 전형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방문했던 1999년은 건립 433년이 되던 해였다. 천일각은 엄청난 고서수장량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 소장 자료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도 유명하지만, 천일각 내에 있는 비림, 즉 明州碑林이 천일각을 더욱 빛나게 한다. 寧波의 옛 이름 明州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주비림에 영파의 중요한 명비들을 모두 모아놓았다. 중앙에 碑殿과 비전을 둘러싸고 있는 碑廊으로 구성되었다. 비랑에는 큰 비들을 진열하고 있는데, 여타의 비림과 마찬가지로 벽면에 비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보관, 전시하고 있었다. 비전에는 유명한 帖을 刻한 비들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역시 벽면에 비를 집어넣는 방식과, 유리케이스 내에 보관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

었다. 유명한 첩비들은 탁본하여 비 위에 올려놓아, 글자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좋았다. 王羲之, 趙孟頫 및 일일이 거명하기 힘든 여러 유명 서가들의 필적들을 새긴 비들을 눈으로 확인해보는 순간이었다. 천일각의 명주비림에 소장된 비들 중 비랑에 진열된 것들은 영파의 역사적인 기록을 비로써 남긴 것들이겠으나, 각 비들에 대한 설명문이나 표찰 같은 것이 없어서 사실 관람 내내 부담스러웠다. 帖을 刻한 것들 중 아마도 대부분은 명대 이전의 것들은 임모본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王羲之의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만큼 오리지날에 충실하게 그 筆意를 刻으로써 남기려 했는가, 어느시대의 임모본으로써 새겼는가의 기준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천일각에서의 소요시간이 길지 않았고, 필자의 얕은 지식으로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4. 南京博物院의 繪畫室

남경박물관 본관은 공사중이었는데, 별관이 신축되어서 남경박물관의 최신 모습을 실견할 수 있었다. 박물관의 외관은 중국 전통건축의 모양새를 살리고 있었다. 거대했던 상해박물관의 인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경박물관이 그렇게 큰 박물관이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니 그게 아니었다. 남경박물관은 北京의 故宮博物院, 臺灣의 故宮博物院에 이어 세 번째의 수장량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 박물관의 하나라는 것을, 2층-1층으로 넓고 깊게 펼쳐진 전시공간과 유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해박물관의 회화실에서 중국회화사의 전반을 살펴보았다면, 남경박물관을 통해서 明清代 중심의 회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남경박물관의 회화 수장량은 2만여점이 넘는다. 지역적으로는 강소성, 절강성 출신 화가들의 작품이 중심이 되고 있다. 허영환 단장님께서서는 버스 속에서 중국회화사를 상세하게 강의해주셨다. 또한 김홍남 교수님을 통해서 南京이 갖는 시대적인 위치와 상업의 발전이 예술에 끼친 영향, 明末清初의 문화 예술의 거점이 되었던 南京의 중국회화사 상의 위치와 의미를 알 수 있었다. 南京을 중심으로 제작된 明清代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오늘날 실제로 확인해 본다는 기대감에 회화실을 들어섰다. 역시 전시장은 명품을 명품답게 전시할 만한 첨단 전시설비가 되어있었기에 시종 부러움으로 관람하였다. 시대별 화목별로 전시된 회화실은 북송대부터 청대까지의 회화가 전시되었으며, 역시 명청대의 그림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元代 趙孟頫 등을 비롯한 元末4大家 黃公望, 吳鎮, 倪瓚, 王蒙의 그림들. 明代 戴進 중심의 浙派, 吳派의 그림들을 지나, 陳淳의 독특한 花鳥畫와 徐渭의 墨戲에 반했고, 董其昌의 몇 점의 산수화를 보며 그의 산수화에 대한 추상성 강한 知的 실험을 보면서, 단아하지만 냉철한 분석과 종합, 그렇지만 그림에서의 흥취라는 부분을 너무 제거해버렸다는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다.

혁신적인 清代 회화에서 揚州畫派의 그림들은 개성을 드러냄에서는 확실히 성공이었으나 무르익은 채목 기교와 품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화려함과 기교에 품격이 다소 늘린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뒤의 개성과 화가들의 과감하고 다양한 작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八大山人, 石濤, 龔賢, 金農, 鄭燮 등 청대의 개성과 혁신을 대표하는 중요 작가들의 작품들을 확인하였는데 이 시기 거장들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鄭燮의 그림과 함께 격조있는 그의 아름다운 글씨에 취했고, 金農의 落款 글씨에서 청대의 전통의 고증을 통해 이뤄진 개성강한 필치에 눈이 멈추었다. 개인적으로 龔賢의 산수화에서 눈과 발을 떼기가 어려웠다. 도록에서만 보던 느낌보다 깨끗하고, 꼼꼼하고 여러번의 붓질이 반복되면서도 결코 먹빛이 탁하지 않았다. 무게와 정적, 그러면서도 맑은 기운을 잃지 않았다. 전시실엔 그의 작품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록의 인쇄본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의 그림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기는 글〉

여행으로서 5박6일은 꽤 짧은 기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답사기간으로는 매우 짧았다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각 박물관마다 4-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머무르고 싶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꿈은 아니리라.

이번 답사의 소득은 몇가지가 있었다. 첫째로 빠르게 변모하는 중국 박물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박물관 사람으로 일하는 몇 해 동안 필자는 이웃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유물에 대한 정보 외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중국의 박물관은 엄청난 속도로, 그러나 매우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둘째로 중국 서화작품들의 실견이 간접체험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점이다. 민망하게도 필자는 중국 역대 서화류에 대한 것은 도록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첫째, 둘째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몹시 부끄럽고 후회되는 점이 많다. 지면을 통해 그간 안이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해본다.

셋째로는 이번 답사 전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답사 팀 간의 호흡, 열정, 진지함이었다. 격렬하면서도 진지한 토론, 각각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주고 받던 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다. 또한 전시주제 및 전개방식 등을 보며 자연스럽게 분석하며 주고받던 전시실에서의 살아있는 스터디 시간들은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마음 뜨거워진다. 그 날의 기억은 내내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이번 답사에서의 최고의 기억은, 이동하는 버스 속 긴 시간 동안 중국미술사와 회화사, 박물관사의 강의로 중국미술의 맥을 짚어주시

며 답사팀 전체를 감동시켜주셨던 단장 허영환 관장님의 열정이 아닌가 싶다. 단장님은 학자의 길과 박물관인의 길을 먼저 가고 계신 우리의 선배님,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버스속은 또한 필자에게 잊지 못할 이동 강의실이기도 했다. 단장님으로부터 중국어를 직접 가르침을 받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 답사일정 마지막 시간까지, 팀원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가이드 한 분이 그랬던가 “이 답사팀 움직이는 것이 꼭 군대같아요. 가이드 평생 이런 여행팀은 처음 봅니다” 라고. 답사를 되짚어보면 사실 낭만을 운운할 부분은 없다. 그런데, ‘오로지 전진’ 뿐이었던 이번 답사 여정에서 짹짹 배어나오는 낭만적인 기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도 필자 눈앞에는 절강성박물관에서 나와 걸어가던 西湖변의 석양이 아른거린다. 사진이 몇 장 있어서 더욱 진하게 남는다. 실제로 그 길은 유유자적 시를 읊듯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버스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뛰듯이 걷던 길이었다. 낭만적인 기억은 각자가 그 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서호변 석양 뿐이겠는가. 단순한 필자가 이정도였으니 다른 일행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던 시간들, 기억들 뿐이다. 6시 기상, 내내 고추장단지과 참기름을 소중히 안고 식사에 참석한 전북대 선생님들, 쟁쟁한 웃음소리와 함께 중국어 발음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던 오일환선생님의 잊을 수 없는 표정, 만능 엔터테이너 총무 김우림선생님, 하마터면 중국사람이 될 뻔한 필자를 오지(?)에서 구해주신 ‘사부님’ 허영환 단장님, 빛나는 죠크 김홍남 관장님, 명쾌함과 돌진력의 겸비 나선화 회장님. 그의 일일이 거명 하지 않은 답사팀 한명한명이 새삼 떠오른다. 사실 이번 답사 중 서화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자의 역할이었건만, 결국 이 글 마무리 부분 쯤 오니, 다분히 감정의 기술과 답사 ‘자랑’만 눈에 보일 뿐이다.

이번 답사에 대한 추억질은 아쉬움을 몇 분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우리 답사팀의 마음 속에서 이번 답사의 모든 것들이 아스라한 꿈으로 사라지지만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답사는 틀림없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